

[제2주제]

해외투자 확대와 자산운용중심지 구축

2015. 10. 15.

연구위원 강현주

연구위원 남재우



목 차

Part I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자 자산운용회사의 역할

1.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활성화와 자산운용회사의 역할
2.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자산운용산업 동반성장

Part II 자산운용중심지 구축 방향과 과제

1. 자산운용허브 입지요건
2. 해외 자산운용허브 및 운용중심지 구축 사례
3. 자산운용중심지 추진 현황 및 방향 설정

Part - I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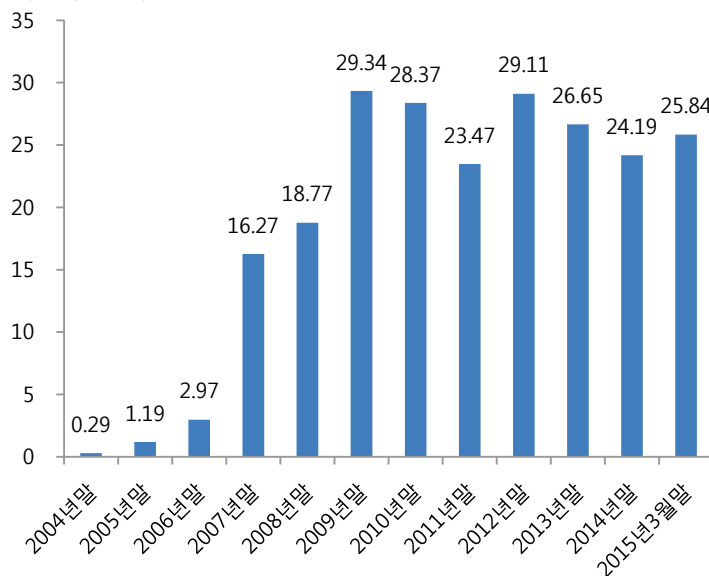
국내 등록 해외투자펀드

❖ 2007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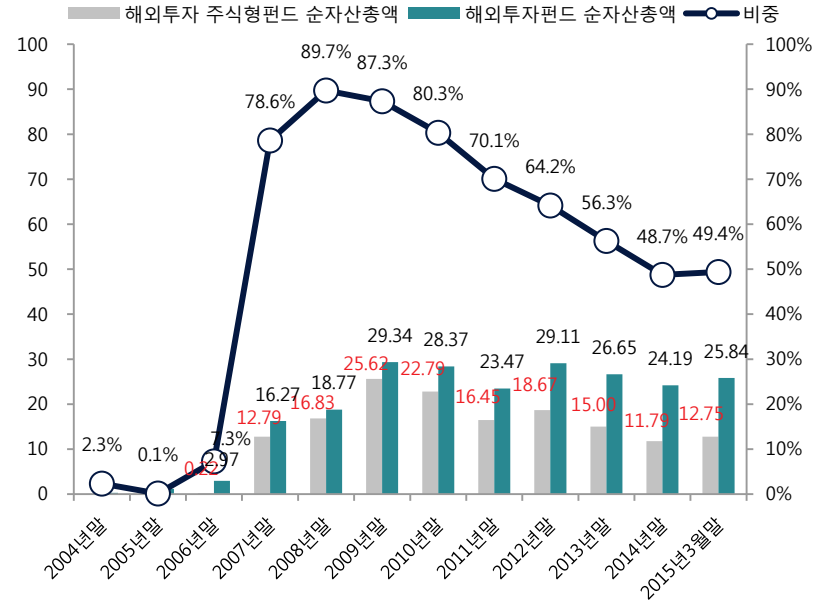
- '위기의 상시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 주식형펀드의 축소,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2009년)

해외투자펀드 순자산총액 및 주식형펀드 비중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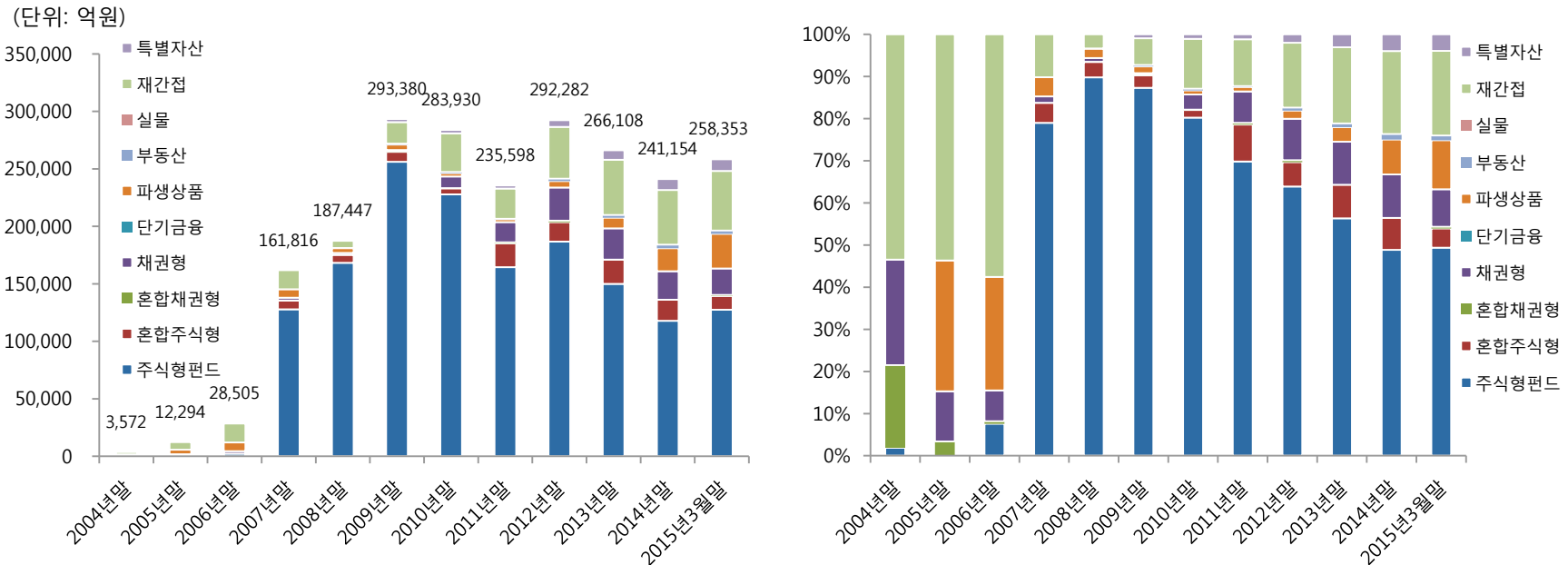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 **주식형펀드의 축소와 재간접 및 파생상품펀드의 성장**

- 해외투자펀드의 90%('08)를 차지하던 주식형펀드 비중은 50%('14)로 축소
- 개인투자자의 중위험-중수익 상품 선호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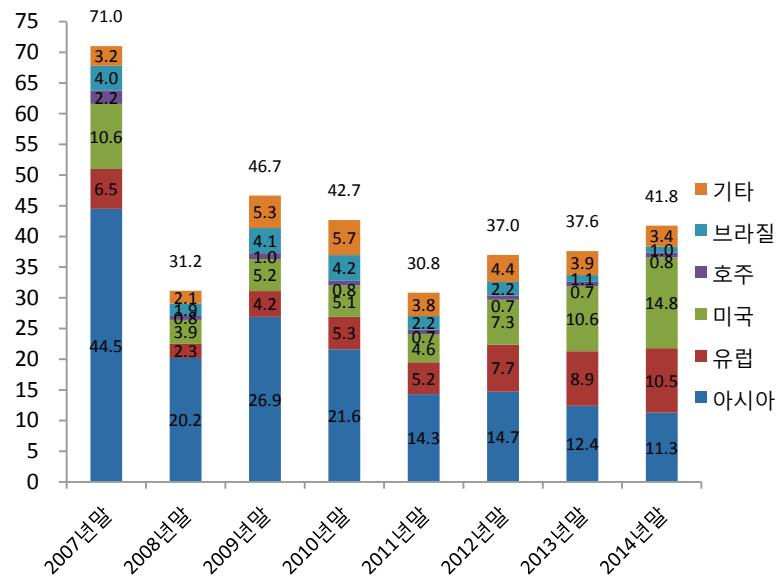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2]

❖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축소와 미국 및 유럽 지역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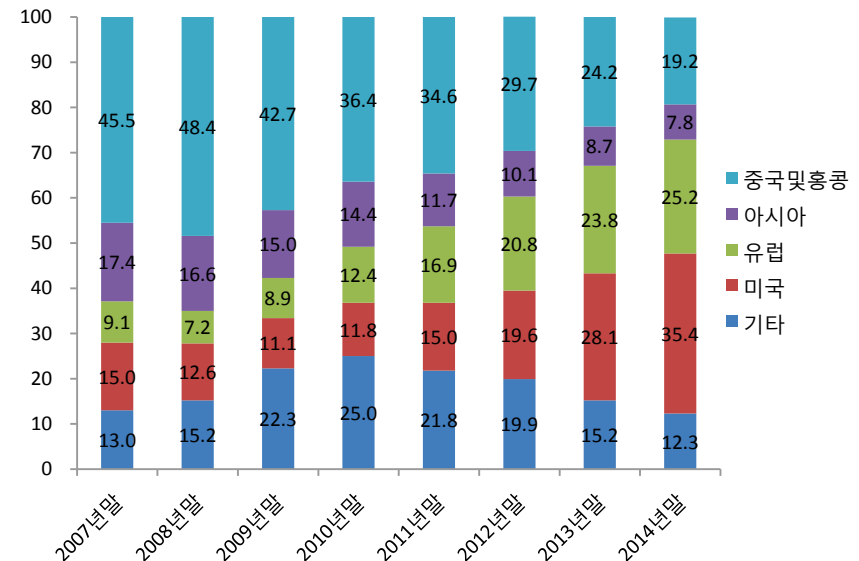
- 전체 해외투자펀드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 투자 비중은 19%까지 축소
- 금융위기 이후 15%까지 축소되었던 미국 비중은 최근 35%로 회복

해외투자펀드의 지역별 투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조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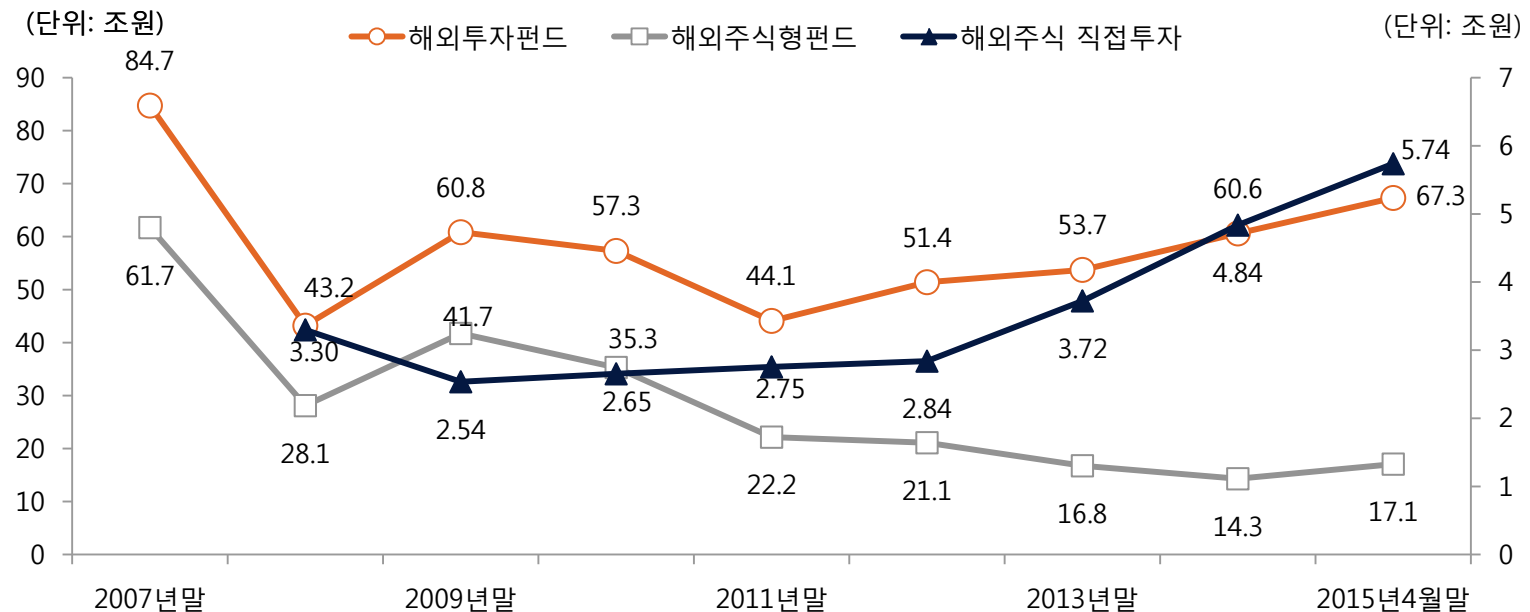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3]

❖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 확대

-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감소한 반면, 직접투자는 5.7조원으로 증가
-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저하 반영
- 국내투자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한 해외투자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펀드 투자의 축소와 직접 투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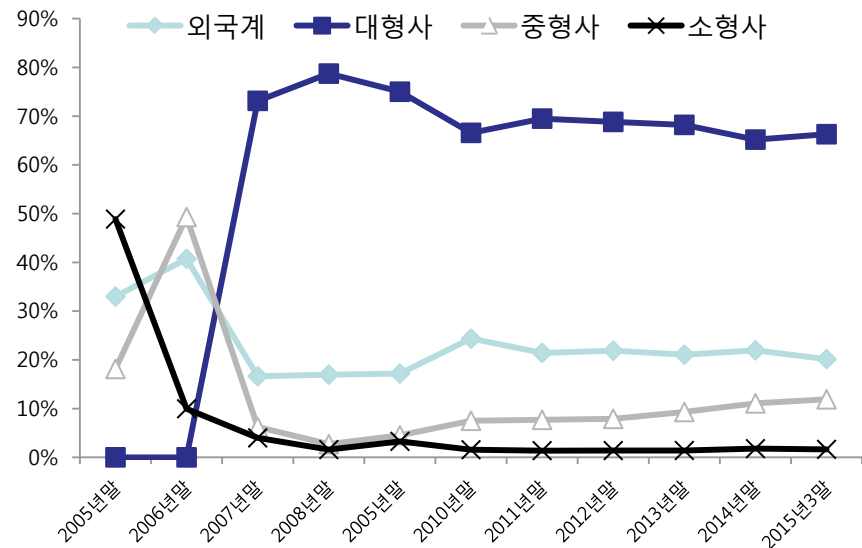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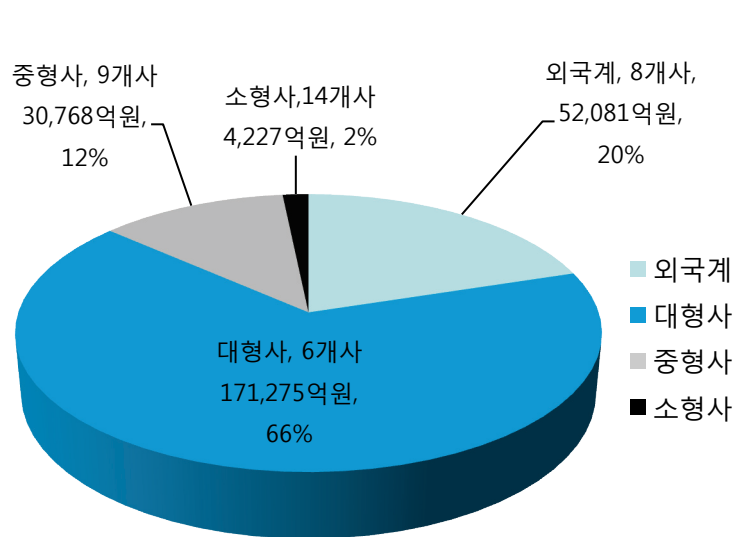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펀드 설정 자산운용사의 특징

❖ 공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는 대형 운용사 및 외국계 운용사가 주도

- 전체 해외투자펀드에서 대형사 비중은 70% 대를 유지
- 정책적 지원이 특정 대형운용사로 집중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자산운용사 규모별 시장 점유율 추이



주 : 총 37개(2015.03) 자산운용사중 순자산총액 1조원이상은 대형사, 1천억이상은 중형사, 소형은 1천억 미만으로 분류
 자료: 금융투자협회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제약 요인

❖ 개인투자자의 정보 제약 및 심리적 요인

- 지역별, 국가별, 운용자산별 정보 제약
- 자국편의(home bias)의 문제

❖ 정부 규제 및 제도적 측면

- 국내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 체계(배당이익, 매매차익, 환차익)
- 해외투자를 위한 금융상품별 세금 관련 규제 차익의 문제

❖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투자 역량 부족

- 지역적 편중 및 자산별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단기적 손실 가능성
- 안정적인 중위험-중수익 구조의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경쟁력 미비
- Cherry Picking으로 인한 공시 수익률의 신뢰성 결여

공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의 정책 과제

❖ 해외투자펀드의 과세 체계 개편

-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활
- 기존 펀드 포함 여부 및 한도 제한 완화

❖ 집합투자기구 공시 의무 경감

- 실질적인 투자자보호 항목 중심으로 공시의 수준과 빈도 정리
- 외화기준가격펀드의 공시 업무 개선

❖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금전차입 조건 완화

- 해외투자펀드의 자산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의 불일치
- 자본시장법상 금전 차입의 조건 완화

개인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운용회사의 역량 강화

❖ 운용 인력 및 시스템 강화

- 경험이 축적된 우수 인력 확보와 정교한 운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높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됨

❖ 성과공시에 대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준용

- Cherry Picking 과 자투리 펀드로 인한 투자자 신뢰 저하
- 국제 표준을 준용하고 그 이력을 축적해 가는 과정 필요 (GIPS 등)

❖ 홍보 및 투자자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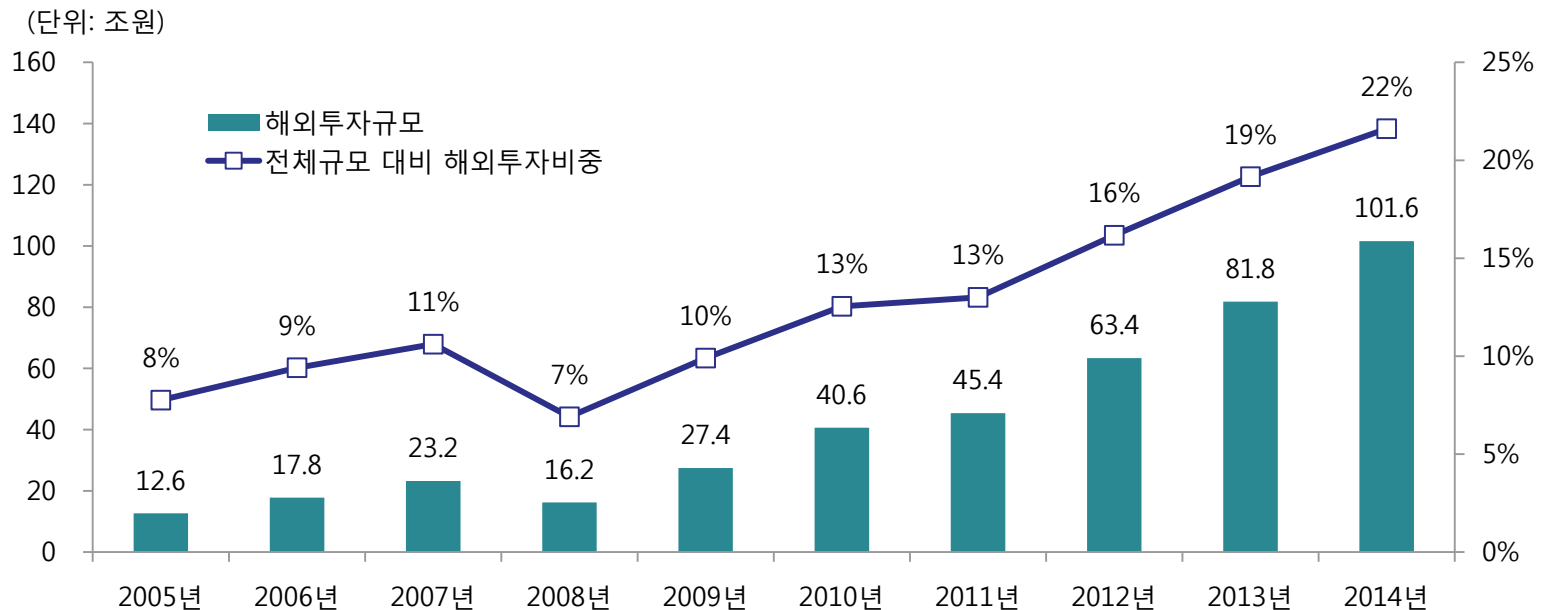
- 개인투자자의 정보 제약이 큰 상태에서,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홍보 및 교육 기회는 유효한 경쟁 수단이 됨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 [1]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증가 추세

- 전체 적립금의 증가와 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목표 비중 확대 기조
- 현재 102조원 규모로 전체 자산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연기금에 비하면 높은 Home Bias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전체규모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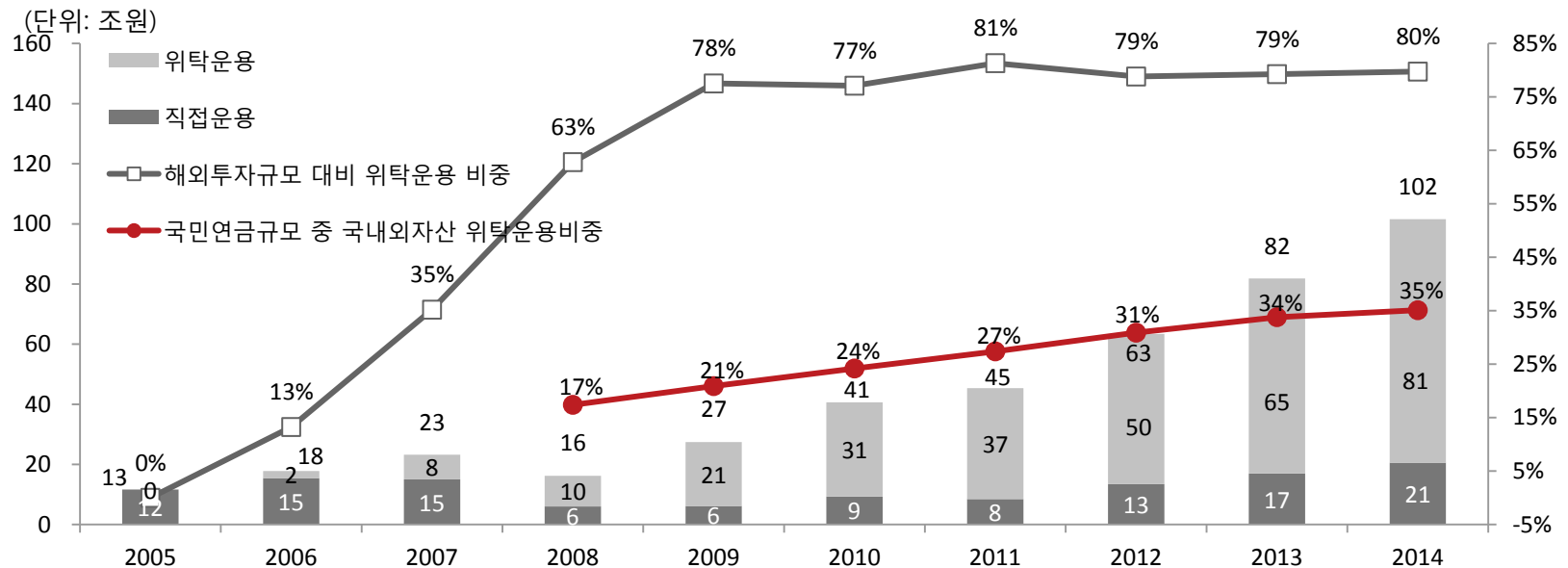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 [2]

❖ 전체 해외투자 자산의 80%가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별로 목표 위탁비중 설정
- 해외투자에서는 국내투자에 비해 위탁운용이 강조됨 (전체 위탁비중: 35%)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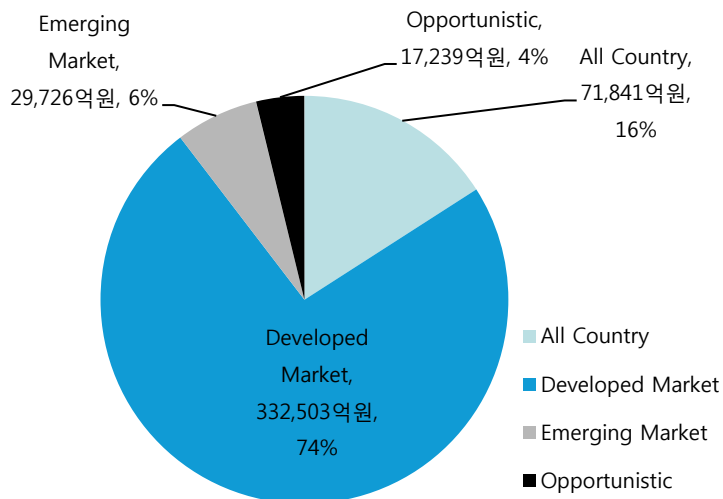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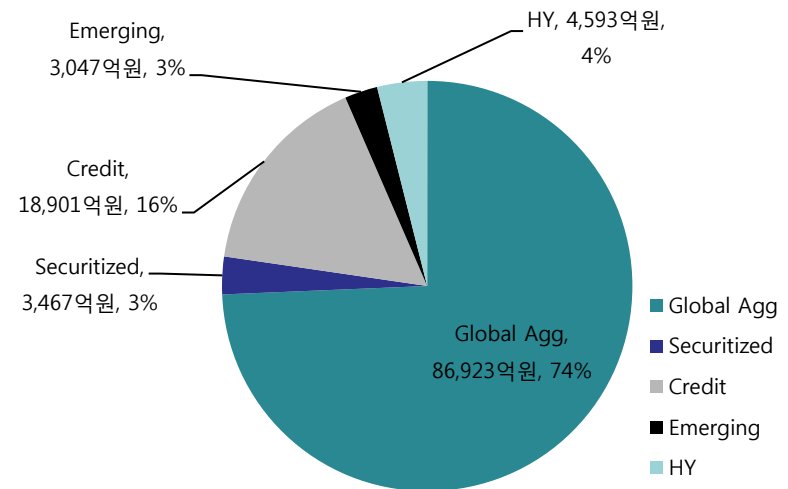
❖ 해외주식은 직접운용 비중 확대, 해외채권은 위탁비중 확대 추세

- 해외주식은 선진국 투자 비중이 74%로 BM 대비 낮은 수준
- 해외채권 전통적으로 선진국 국채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위탁운용을 통한 신용물(credit) 비중 확대 추세

국민연금 해외주식 위탁운용의 투자 유형



국민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의 투자 유형



주 : 2014년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체계

❖ 전통적투자자와 대체투자자에 대해 상이한 위탁운용사 선정 체계

- 1차 제안서 심사와 2차 구술 심사를 합산한 총점 기준으로 최종 선정

(사례) 국민연금의 전통적투자자 해외부문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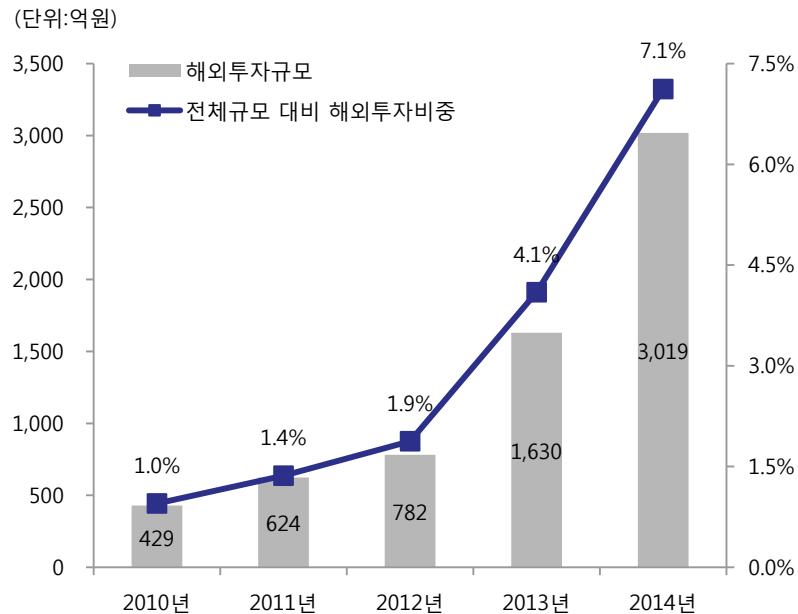
구분			평가내용
1차 심사 (제안 서)	정량 평가	주식(15)	•Performance : 초과수익률, 정보비율, 운용기간
		채권(25)	•Performance : 초과수익률, 정보비율, Success Ratio, 운용기간
	정성 평가	주식(85)	•Business : 사업의 안정성, 회사의 안정성, 경영전반의 우위 (10) •People : 운용팀 및 지원인력의 적정성, 인력확보 및 유지노력 (30) •Process : 투자 철학의 명확성, 투자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30) •Fee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10) •기타 : 대고객 서비스 및 리포팅 체계의 적정성 (5)
		채권(75)	•Business : 사업의 안정성, 회사의 안정성, 경영전반의 우위 (10) •People : 운용팀 및 지원인력의 적정성, 인력확보 및 유지노력 (20) •Process : 투자 철학의 명확성, 투자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35) •기타 : 대고객 서비스 및 리포팅 체계의 적정성 (10)
2차 심사 (구술)	정성평가(100)		•Business : 운용기간, 규모, 소유구조, 전체적인 경쟁력, 평판 (10) •People : 인력의 우수성 및 안정성 (20) •Process : 운용전략의 우수성, 투자의사결정의 효율성,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60) •Service : 고객서비스지원체계, 한국 및 공단에 대한 헌신도, 지식전수 잠재력 등 (10)
계			•제안서심사(50%) + 구술심사(50%)

공적연기금의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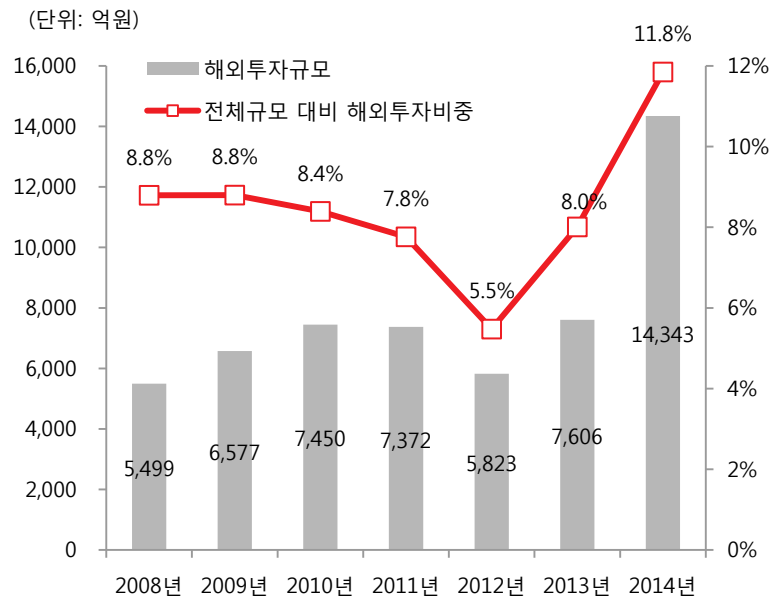
❖ 주요 공적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 추세

- 공무원연금은 2010년 1%를 시작으로 2014년말 7.1%로 해외투자 비중 확대
- 사학연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 축소 기조에서 최근 확대로 전환

공무원연금 해외투자



사학연금 해외투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적연기금의 위탁운용 체계

❖ 1차 정량평가(서류심사)와 2차 정성평가(구술심사)의 점수 합산 체계

- 해외주식 위탁운용사(2개) : 신한BNP파리바, 하나UBS
- 해외채권 위탁운용사(3개) : 동부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 현대자산운용

(사례) 공무원연금 해외부문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인덱스형	Active형	자문형
1차 심사 (서류심사)	자본 건전성	자본총계규모	10	10	10
		총자산 순이익률	10	10	10
	운용 신뢰도	유형별수탁고(잔고)	10	5	20
		운용(자문)기간	5	5	10
		금융감독기관 제재사항(운용기관/운용역)	5	5	10
		해당유형운용인력 및 위험관리 인력수	10	10	10
	운용보수	운용보수	20	10	30
	운용성과	BM초과수익률	20	30	-
		위험조정성과(IR)	10	15	-
2차 심사 (구술심사)	Business	경영 안정성 및 독립성	10	10	10
	Process	CIO 운용철학 및 운용프로세스의 우수성	20	20	10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적정성	20	20	20
		글로벌 리서치 능력 및 우수성	20	10	20
	People	펀드매니저의 전문성 및 운용성과 우수성	20	30	10
	Service	고객지원 인프라	10	10	10
	관리능력	하위운용사 선정 및 관리능력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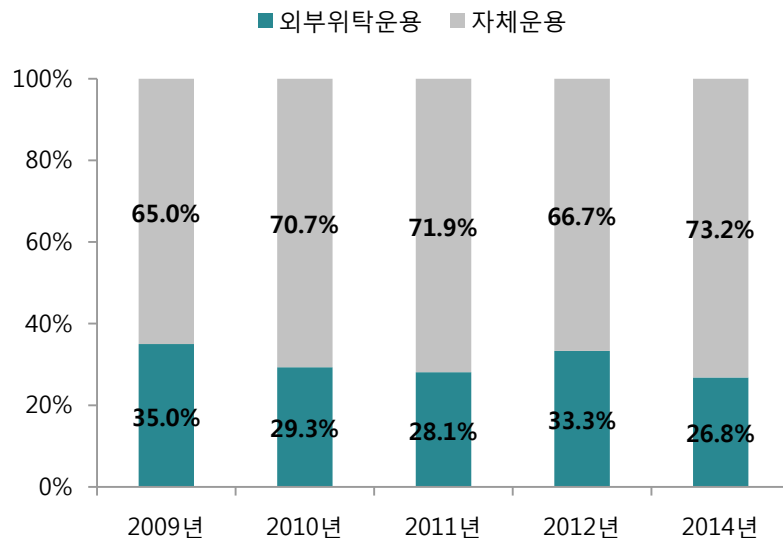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 현황

❖ 한국투자공사(KIC)의 위탁운용비중은 30% 수준으로 전술적으로 조정됨

- 한국은행 등의 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구조에서 재위탁의 근거 필요
- 매년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며 주식, 채권, 멀티에셋, 헤지펀드에 대한 운용사 업력 제한은 1년, 사모주식과 부동산&인프라는 3년으로 제한

전통적자산에 대한 운용 주체 비중



자료: 한국투자공사

KIC 위탁 운용사 현황

자산군		위탁 운용사
전통적 투자	주식	FirstState, AQR, BlackRock, MFS, PanAgora, Wellington, Axiom, Samsung, UBS
	채권	Brandywine, PIMCO, Western
	멀티에셋	BlackRock, JPMorgan, Morgan Stanley, UBS
대체 투자	사모주식	Avista, CD&R, Francisco Partner, Canyon, CITIC, CenterBridge, GSO, RRJ, Park Square, Partners Group
	부동산&인프라	MIP, Angelo, Gordon, Starwood, Alpha Asia, Blackstone, Gaw Capital, Partners Group
	헤지펀드	Citadel, Two Sigma, York, Angelo Gordon, Bridgewater, DE Shaw

해외투자 확대 및 동반성장의 제약 요인

❖ 기관투자자의 내부 구조 및 투자 관행

-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
- 주요 투자지역 현지화의 어려움 (대체투자 등)
- 비합리적인 투자 프로세스 및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

❖ 정부규제 및 제도적 측면

- 외국환 규제 관련 연기금 해외투자의 걸림돌
- 중복적이고 소모적인 감사 문제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 역량 부족

- 글로벌 유형(global mandate)에 대한 투자 업력 (track record)
- 객관적인 운용 성과 공시 체계

자산운용회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

❖ 정부 정책 측면

- 공적연기금의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스튜어드십 코드 재정 등)
- 사적연금의 활성화 지원

❖ 기관투자자 측면

- 위탁운용사 선정에 그룹제 도입
- 예비운용사(루키) 제도 도입
-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자산운용회사 측면

-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 강화
- 해외진출에 대한 전사적 의지

결론 및 시사점

- ❖ **고령화사회에 따른 연금자산의 확대와 함께 자산운용산업 동반성장**
 - 미국의 401K 및 호주의 Superannuation Fund
 - 정책적 의지와 시장 참여자의 경쟁 강화 병행
- ❖ **연금자산 증가가 반드시 자국의 자산운용산업 발전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전체 연금시장에서 특정 연기금의 집중도 (미국, 호주 vs 일본, 네덜란드)
 - 국민연금기금 단일 기관의 높은 집중도
- ❖ **국내 자산운용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
 - 내부적 요인: 기관투자자와 동반 진출 모색, 초기단계는 KIC의 역할 강조
 - 외부적 요인: 자산운용회사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 요구

Part - II

자산운용중심지 구축 방향과 과제



개요: 자산운용허브 vs 자산운용 중심지

❖ 자산운용허브: 룩셈부르크 및 싱가포르

- 단순한 금융규제, 낮은 세율, 시장 하부구조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제 자산운용사와 펀드 등록이 집중
- 펀드의 실제 판매 및 운용을 위한 투자 활동은 해외 시장에서 수행
- 펀드 판매를 통해 모집된 자금이 투자를 위해 재분배되는 허브(hub) 역할

❖ 자산운용 중심지: 영국 및 호주

- 국내 펀드수요 및 금융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제적 자산운용사들이 진입하여 펀드의 등록 및 투자 활동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짐

❖ 전통적 자산운용허브인 룩셈부르크 및 싱가포르와 역내 대표적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하는 호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시장 역내 경쟁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발전 전략을 모색

금융허브 및 펀드등록 입지요건: 문헌연구

❖ 국제금융센터 입지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대체로 시장규모 및 연관산업 발전, 금융규제 등이 중요 요인

➢ 다만, Lang (2014) 및 Moosa et al. (2013) 등 일부 연구에서는 과세, 인적 자본 등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펀드등록의 경우에는 시장규모 및 규제와 함께 세제 등 비용요인, 인적 자본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Matheson (2014)의 글로벌 기관투자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럽내 펀드등록지 결정시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응답

유럽내 펀드 등록지 선택요인

법규적 요인	재무적/사업적 요인	시장/판매 요인
펀드 패스포트 접근성	사업비용	시장접근 속도
규제당국의 전문성	전문적 서비스 인력 확보	시장규모
규제당국과의 접근성	펀드 과세처리 방식	펀드 센터로서의 명성

자료: Matheson(2014)

해외 사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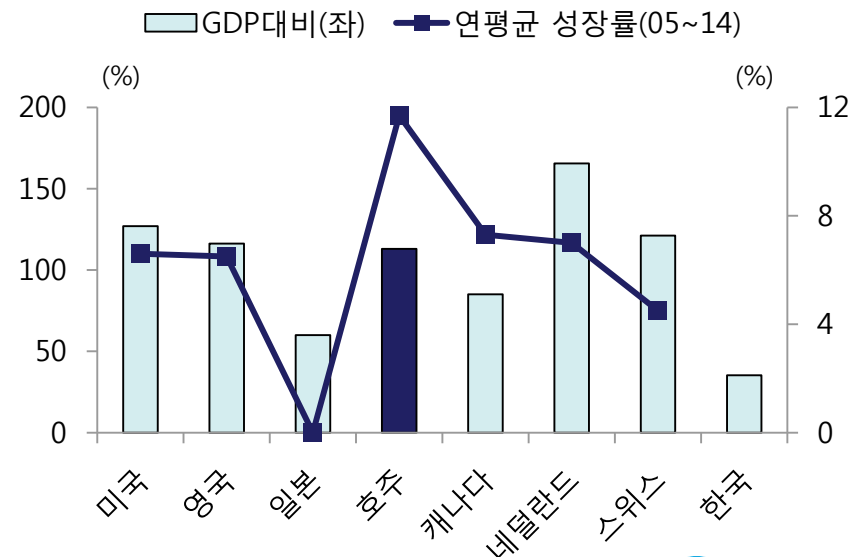
❖ 국내 시장규모 차이에 따른 상이한 성장모델

-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의 협소한 자국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과세, 연관 산업 집적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외국 자본 및 금융기관을 유치
- 반면, 호주는 의무 퇴직연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국내 운용사의 대형화 유도 및 국제적 운용사를 유치

싱가포르 및 호주 펀드과세 비교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운용사): 10% 펀드관련 자본이득세 면세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30% 자본이득세(최대): 47% 퇴직연금 소득세율: 10% (3만 A\$ 이내)

주요국 연금자산 비교(2014년말)



자료: Towers Watson

해외 사례 시사점

❖ 정부의 자산운용업 발전전략의 중요성: 금융규제 혁신 및 비전제시

- 룩셈부르크의 UCITS 도입 및 싱가포르의 아시아 달러 시장 구축은 선점효과를 통해 양국이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 호주의 경우에도 당초 사회복지 관점에서 도입된 의무 퇴직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산운용업의 시장 확대에 유도
- 싱가포르의 금융허브전략 보고서('02), 호주의 Johnson Report('09)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산운용업 발전전략을 수립한 주요 사례
- 최근에는 사모펀드 시장 육성 및 위안화 관련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노력

❖ 외국 금융기관들의 효과적 시장진입

- 룩셈부르크 및 싱가포르와 같은 소규모 국가들이 허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외국 기관을 유치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Axiss를 통해 외국 운용사의 호주 진출을 지원: 10대 운용사 중 5개가 외국계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추진경과

- ❖ 정부는 2003년 우리나라를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을 발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거점을 유치하는 등 자산운용업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성과

2004~07	2008~10	20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설립 • KAIST 경영대 • 퇴직연금제 • 자본시장법 • 금융중심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 서울 및 부산 금융중심지 선정 • 자산운용업 전문화,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지펀드 도입 • ATS 및 CCP • 서울 IFC 및 부산 문현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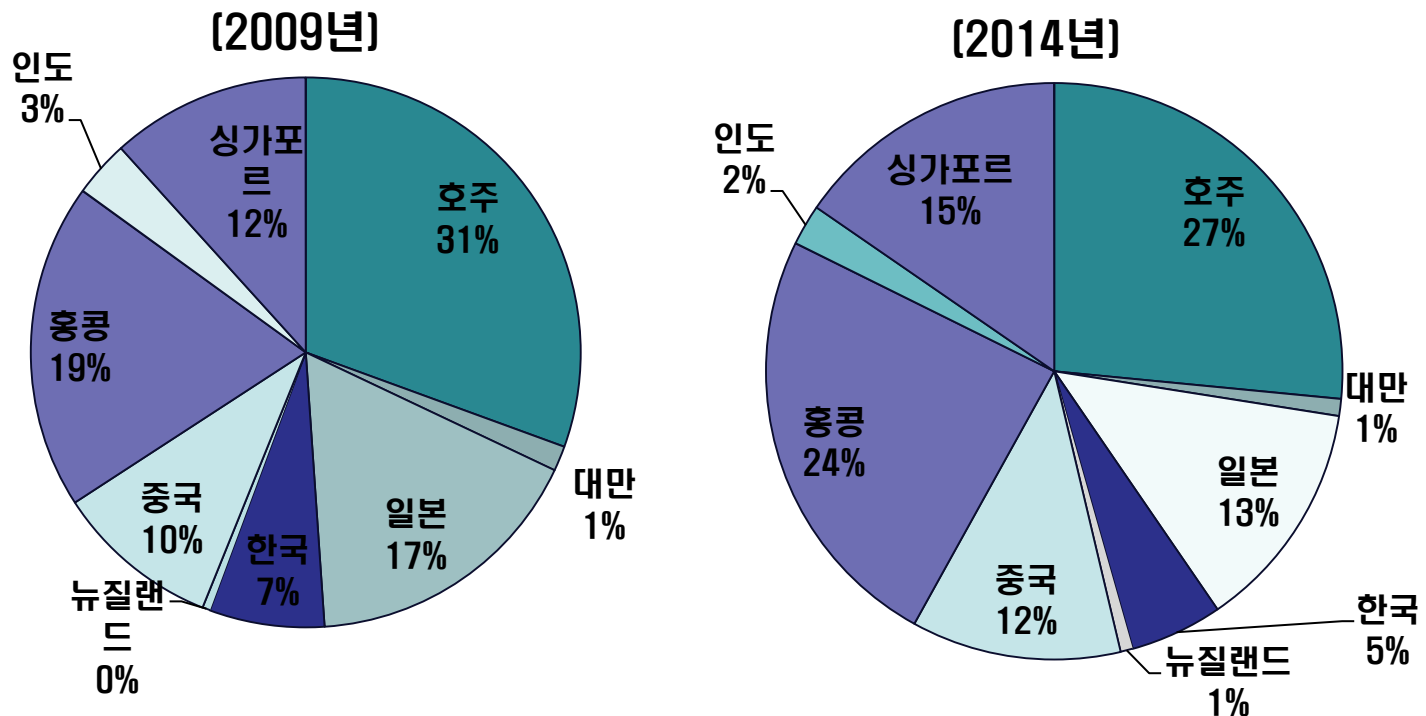
- ❖ 정부의 2014~16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자산운용업, 사모펀드, 헤지펀드를 5대 선도금융산업으로 선정

한국의 경쟁력 현황

❖ 시장규모: 2014년말 아태지역내 6위

- 2009년과 비교하면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며 한국의 역내 비중은 오히려 축소

아태지역 주요국 자산운용시장 규모



자료: ICI, MAS, HK SFC

한국의 경쟁력 현황

❖ 금융규제

- 2014년 IMD 금융규제 적합성 조사: 60개국중 55위
- 공모펀드에 준하는 사모펀드 규제는 주요 선진국과의 상당한 규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신보성 외, 2015)

❖ 과세

- PWC / WB(2014) 조세경쟁력 조사: 25위(아태지역 3위)
- 전반적인 세율은 낮은 편이나 홍콩 및 싱가포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총 세율(법인세, 소득세 등 종합) 기준 일본(51%)>한국(32%)>싱가포르(18%)

❖ 인적자원

- 2014년 IMD 금융인력 구인가능성 38위, 경영학 교육 47위, 외국 우수인력 유치 43위로 역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해외 자산운용사의 진출 미흡

- 외국계 운용사는 2004년 11개사에서 2014년 24개 회사로 확대되었으나 소규모 운용사들 중 적자인 곳이 많아 일부는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
- 국내 진입한 외국계 운용사의 아태지역 본부는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
- 외국계 중 상위 2개사를 제외하면 해외펀드에 대한 쓸림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간접상품 비중(>40%)이 높아 국내 수요를 고려한 현지화 노력이 미흡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 투자지역 구분(2014년말)

	해외투자펀드		국내투자펀드	
	펀드수(개)	순자산(조원)	펀드수(개)	순자산(조원)
중소형 외국계 ¹⁾	289	9.3	411	17.3
	(10.7)	(15.4)	(4.4)	(5.2)

주 : 1) 상위 2개사 제외, 2) ()내는 전체 운용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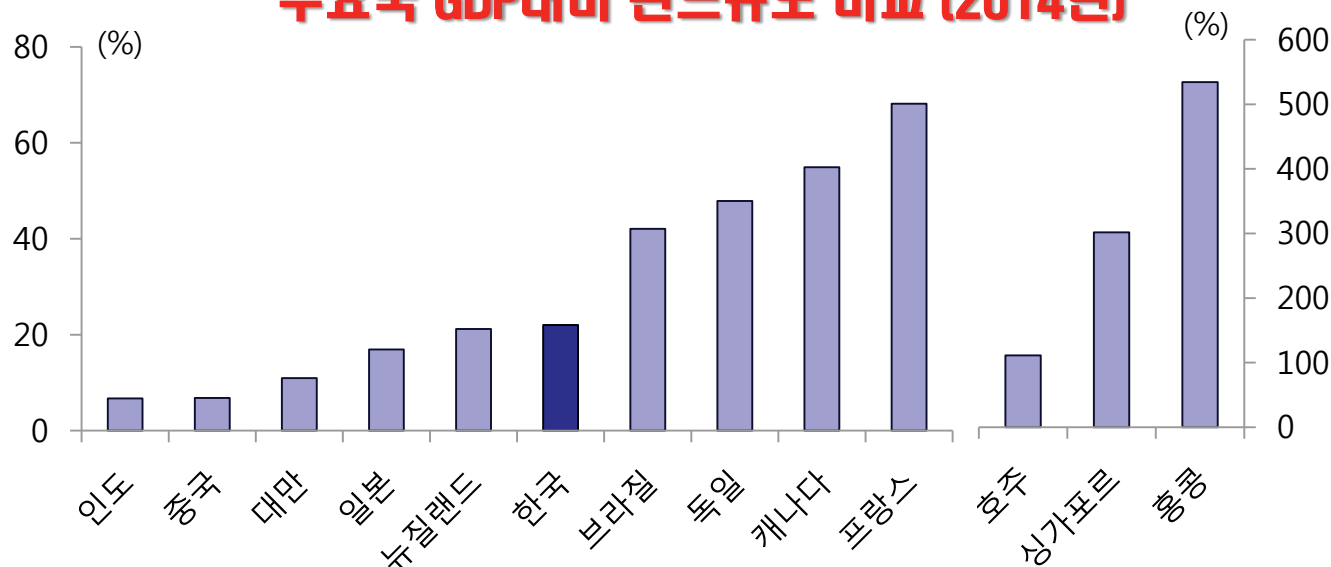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평가

❖ 경제규모대비 시장규모가 작아 향후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형태의 금융자산 축적이 확대될 전망
- 송홍선 외(2013)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7%대 성장세를 유지하여 GDP대비 7~8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주요국 GDP대비 펀드규모 비교 (2014년)



- 다만, 일본과 같이 가계 금융자산이 예금 위주(45%, 2013년)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3년 추진 전략 도입 당시에 비해 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

-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금융분야가 뚜렷하지 않고 국제적 외국 금융기관 유치 및 국제화된 국내 금융기관 육성이 미흡한 상황
-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개선사항이 다수 존재하며 전문인력 부족문제도 상존
- 이에 따라 종합적인 금융허브 경쟁력을 보면 홍콩, 싱가포르 등과 여전히 상당한 격차
- 다만, 실물경제 기반, 자산운용 수요의 잠재력, 동북아 지역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 기회 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

금융중심지 추진 기본 전략

- ❖ 국내 경제력 및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수요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확충을 유도하는 가운데 중국 등 대외 부문 수요를 적극 흡수하여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를 통한 운용 중심지 구축 전략이 필요
 -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외국 운용사의 실질적 국내 진출을 촉진
 -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국내 운용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규모 영위를 위해 물리적 해외 진출 등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

주요 정책과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 및 펀드투자 활성화

- 저성장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제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
- 기존에 도입한 다양한 세제혜택 상품을 단순화하고 10년 이상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모펀드시장 육성

-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로 주요 자산운용 허브 및 운용 중심지들은 사모펀드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중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요 허브국가들의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투자운용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고 사모펀드의 유형 구분이 단순
- 사모펀드의 인가, 투자운용,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사모펀드 근거법령간 규제차이를 해소하여 유연한 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주요 정책과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 운용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국부펀드 및 연기금과 같은 양질의 장기 투자자금이 국내에 활발히 유입될 필요
- 주요 국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재정 등을 적극 추진

중국 경제의 부상과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

- 위안화 국제화를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자생적 노력이 병행중
- 위안화 금융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안화 사모시장 육성, 정부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위안화 선물시장 활성화 등을 검토할 필요